

선진미술관서 배운다 유럽편

4 포피두 센터 프랑스 국립 현대미술관

기발한 아이디어·디자인만으로도 충분히 즐겁다

파리=정상필 특파원

루브르가 중세에서 19세기 중반까지 회화와 조각 등 다양한 장르의 서양미술을, 오르세는 현대인들에게 친숙한 인상주의 화가 작품을 비롯한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까지 작품을 컬렉션으로 정하고 있다면, 조지 포피두 센터 내의 프랑스 국립 현대미술관은 20세기 초반에서 현재까지의 미술세계를 조명하고 있다. 파리의 3대 미술관이 정책적으로 시대별 흐름을 담고 있는 것이다.

6만점에 가까운 방대한 컬렉션을 자랑하는 국립 현대미술관은 조지 포피두 센터라는 건물 자체로도 세계인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하다. 현대미술의 난해함은 미술관에 전시된 작품들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그러나 작품 속에 숨은 작가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려는 노력이 오히려 작품 감상에 방해가 된다면, 현대미술 특유의 기발한 아이디어나 디자인을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미술관 산책은 충분히 즐겁다.

미술관을 찾는 학생들에게는 현대미술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는 것 외에 이치롭 상상력과 창의력을 길러준다는 의미를 갖는다. 프랑스 내 다른 미술관도 마찬가지지만, 이곳에 특히 학생들의 방문이 많은 이유다. 국립 현대미술관은 조지 포피두 센터가 미술관 뿐 아니라 도서관, 영화관 등이 포함된 복합 문화시설이라는 점 때문에 젊은이들을 위해 많은 배려를 하고 있었다.

조지 포피두 대통령이 집권하던 1962년 미술을 비롯한 문화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국립 미술센터 설립에 대한 첫 구상이 나온 뒤 1977년 포피두 센터의 개관이 이르기까지는 꽤 오랜 세월이 걸렸다. 포피두 대통령은 파리의 중심인 보부르(Beaubourg) 일대를 대상으로 결정했고, 국제 공모를 통해 당선된 렌조 피아노(Renzo Piano)와 리처드 로저스(Richard Rogers)의 설계가 현실화됐다.

각종 파이프와 배관이 건물 밖으로 튀어나와 있어 심지어 고풍스텝기까지 한 주변 풍경과는 잘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당시로서는 과격적인 외관의 포피두 센터는 에펠탑이나 루브르 피라미드가 그랬듯 당시 수많은 비판을 받았다.

센터 내에는 20세기 이후 현대미술을 전시하는 미술관 외에 도서관, 영화관, 공연장, 청각 음향 연구소 등이 들어섰다. 그러나 1977년 개관 이후 하루 예상방문객이 예상(5천명)을 훌쩍 넘어섰고, 미술관 소장품도 수만 점으로 늘어가자 1998년부터 1999년까지 대대적인 보수 공사를 통해 2000년 재개장을 하기에 이르렀다.

소장품 6만여점 현대미술 寶庫

도서관·영화관 복합 문화시설

청소년들 넘치는 '젊은 미술관'

국립 현대미술관은 20세기 초 생존 작가들의 작품을 주로 수집·전시했던 픽상부르 미술관의 작품들을 포함한 국가 소유 현대미술 소장품을 모아 에펠탑 건너편에 있는 팔레 드 도쿄에 1947년 처음으로 문을 열었다. 이후 미술관은 여러 수집가들과 후원단체 등에 의해 소장품 규모를 늘렸다. 포피두 센터 내로 입주한 현재 미술관에는 6만점의 현대미술 작품들이 소장돼 있다.

국립 현대미술관 컬렉션은 회화에서 사진, 영화, 뉴미디어, 조각, 디자인, 건축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종류의 창작품을 망라하고 있다. 포피두 센터 내 4~5층(전시공간 약 1만4천㎡)에 자리한 미술관의 4층에는 각종 설치미술 등 실험정신이 돋보이는 1960년부터 현재까지의 작품이, 5층에는 20세기를 대표하는 피카소, 달리, 뒤샹 등 1905년부터 1960년까지의 작품이 전시돼 있다. 현대에 이르면서 영상상을 이용한 작품들이 많아지는 추세에 맞춰 영상 작품만을 볼 수 있는 시청각 전시실을 따로 마련, 1천여점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 1977년 복합 문화센터의 기능을 위해 탄생한 조지 포피두 센터는 30년이 지난 지금, 연간 입장객 300만명에 가까운 파리의 대표적 문화공간으로 자리잡았다.

미술관 측은 1960년대부터 거장들의 작품을 한데 모아 그의 작품세계를 체계적으로 조명하는 특별전을 열어왔다.

◇젊은 미술관

3월 둘째 목요일이던 지난 12일, 포피두 센터 로비에는 동그란 원을 그려놓고 그 안에서 흔적처럼 보이는 젊은이들이 눈에 띄었다. 국립 현대미술관이 마련한 '목요일들' 행사에 참여한 대학생들이었다. '목요일들'은 매월 둘째 목요일에 미술, 무용, 음악 등을 전공하는 대학생들에게 미술관 측이 공간을 빌려주고 미술관 소장품 및 관객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행사다.

이날 행사에서 양제 시(市)의 국립현대미술관 센터 학생들은 바닥에 그려진 원 안에서 눈을 감고 공간을 느껴보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이들은 관객들이 눈을 감고 원 안에서 여러가지 몸 동작을 할 수 있게 도왔다. 같은 시각 미술관이 전시돼 있는 4~5층에서는 작은 콘서트가 진행됐다. 필루스 예술학교 학생들이 일부 전시실에 실험적 음악을 틀어놓고 현대미술 작품과 현대음악의 연관성을 모색한 것이다. 테크노 음악을 들으며 즐기는 밀로의 그림은 색다른 느낌으로 다가왔다.

'개미'들의 힘...매년 대작 10여점 사들여

국립 현대미술관 후원단체 '미술관의 친구들'

조지 포피두 센터 내의 프랑스 국립 현대미술관이 세계 현대미술의 흐름을 주도하는 다양한 소장품을 지닐 수 있었던 데는 후원자들의 힘이 컸다. 예술을 깊이 이해하고, 국가를 사랑하는 '개미' 후원자들이 있었다.

국립 현대미술관의 후원단체인 '미술관의 친구들'은 1903년 당시 생존 작가들의 작품을 소장하던 픽상부르 미술관에서부터 출발한다. 100년이 넘는 역사를 지녀 프랑스 내 가장 유서깊은 미술관 후원단체 중 하나로 꼽힌다. 1924년 공익 단체로 인정돼, 조지 포피두 센터가 세워지기 한참 전인 1946년 국립 현대미술관의 정식 후원단체로 발족했다. 이 단체의 궁극적 목표는 국립 현대미술관의 컬렉션을 풍부하게 하는 것이다. 미술관 측은 이들이 십시일반 모은 돈으로 매년 10점 가까운 대작들을 사들이고 있다. 지난해엔 1990년대 영국 최고 권위의 현대미술상인 '터너상'을 수상해 거장의 반열에 오른 인도 출신 영국 작가 아니쉬 카푸어의 작품을 기증했다.

후원단체 회원들은 국립 현대미술관 내 출입이 자유로운 것은 물론, 매년 파리 근교에서 열리는 전시회 50여회, 작가와의 만남 또는 아틀리에 방문 30여회, 세금 혜택 등의 특전을 갖는다. 회원 종류는 5가지로, 연간 250 유로(약 47만5천원)에서 2천500 유로(약 475만원) 이상까지 회비를 내고 가입할 수 있다.



프랑스 국립 현대미술관의 후원단체인 '미술관의 친구들'이 최근 사들인 소장품. 인도 태생 영국 조각가인 아니쉬 카푸어의 2008년 작 '무제'.

지난 1973년 설립된 '프랑스 미술관의 친구들 연합'에는 전국 300여개 후원단체가 가입돼 있다. 이들 개미 후원자들이 사들여 미술관에 기증한 소장품은 전국적으로 5천점이 넘는다.



포피두 센터 내 국립 현대미술관 4층 전시실 복도에서 대학생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2009년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주택보급 정부무상보조금 60% 신청/접수. 주택용 태양광발전 시스템 설치시 전기요금에 90% 이상 절감. 내 집 전기는 내가 직접 만들어 쓴다. COSMOENG [주]코스모이엔지. T. 080-7272-7000.

방수 IPALG 하이브리드 강화 특수방수 공법. 옥상방수 혁신공법. [주]에피제지엔지니어링 특수방수. T. (062) 511-0141.